

## 이주, 젠더, 스케일: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의 새로운 지형과 쟁점\*

정현주\*\*

### Migration, Gender and Scale: New Trends and Issues in the Feminist Migration Studies\*

Hyunjoo Jung\*\*

**요약** : 본 연구는 페미니스트 이주연구의 화두인 '이주의 여성화'에 내포된 스케일 이슈를 각종 문헌을 통해 분석하였다. 젠더선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페미니스트 이주연구는 거시적 스케일에서 뿐만 아니라 미시적 스케일에서 형성되는 젠더관계와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과정이 상호 접목되는 양상을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기존의 이주연구가 국가별 수준에서, 젠더요인에 대한 피상적 고려에 그친 것을 비판하면서, 페미니스트 접근은 지구적인 노동의 성별분업, 초국가적 가족연계망, 이주여성의 몸과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생산을 통해 역동적으로 재구성되는 젠더관계를 주요 연구주제로 상정한다. 최근 국제이주의 주요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이주 여성은 국경과 공적·사적 영역을 넘나들며 근대적 젠더관계와 그 경계를 교란하고 있다. 이들의 경계넘기의 젠더정치학은 다양한 스케일의 창출을 수반하는 스케일의 정치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증대된 에이전시와 가족관계망의 초국가적 확장을 통한 국제이주의 증가는 이주여성들에 의한 초국가적 스케일의 생성인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세계화의 전형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페미니스트 이주 문헌에서 나타나는 스케일에 대한 오해를 시정하고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연구 성과를 접목하여 양 학문분야의 의사소통을 증진하고자 한다.

**주요어** : 국제이주, 젠더, 스케일, 페미니스트 지리학, 이주의 여성화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scale issues in the contemporary feminist migration literature. Scale appears as important, yet poorly understood concept in this field of study. The increasing attention to the feminization of migration requires not only gendered, but also scalar-sensitive approaches. Feminists criticize the conventional approach to the migration as a gender-blind approach that privileges national scale around which migration processes are organized. Claiming multiscalar and interscalar analyses, they propose investigations ranging from macro to micro processes which include globalized gendered division of labor, transnational family networks, and reproduction which takes place in and through the bodies and homes of migrant women. The migrant women, the major actors in recent transnational migration, cross various borders: the national boundaries and the public and private divides, in particular. This crossover can unsettle patriarchal gender relations which have been established based on the physical and symbolic division of nation-states and public/private spheres. Blurring these divisions accompanies social construction of various scales. The transnational family networks of migrant women, for example, show the construction of a transnational scale by migrant women as well as globalization from below. This paper points out misunderstandings of scale in the feminist migration literature and attempts to fill the gaps by introducing the meanings and implications of scales developed mostly by feminist geographers. In so doing, it promotes the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Key Words** : transnational migration, gender, scale, feminist geography, feminization of migration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L0016).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원(Research Fellow,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jung0072@gmail.com

## 1. 서론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는 최근 이주 연구의 화두이다. 이주와 젠더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이주의 여성화라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주의 여성화라는 용어는 초국가적 이주 경관에서 여성의 역할과 비중이 높아지면서 등장하였다. 초국가적 이주의 주체로서 여성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이주여성의 수가 남성을 압도할 정도로 증가하였다는 사실 외에도 1960년대 이후 활발해진 페미니즘 운동과 연구가 그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 과도 무관하지 않다. 학문 전 영역에서 젠더관점의 도입은 기존의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이는 이주 연구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더구나 여성이 주도적인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한 초국가적 이주에서 젠더 관점의 도입은 매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주연구에서 페미니스트 관점의 도입은 기존의 이주연구가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이루어졌다는데 대한 문제제기에서 비롯되었다. 초기에는 기존의 연구가 여성이주자를 연구대상에서 배제시켰음을 비판하면서 이민여성의 경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는 이민여성에게 과도한 초점을 맞추므로써 여성에게 국한된 연구의 한계를 노정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기존의 연구가 여성을 배제했듯이 이제는 남성을 배제하는 우를 범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의 핵심은 이주를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문제로 이해했다는 데 있다. 이주 경험의 성별 차이를 결정짓는 요인은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성역할, 즉 젠더관계에 기인한다는 인식이 이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젠더는 이주 연구의 키워드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된다. 1990년대 이후 이주와 젠더연구는 젠더가 단지 이주과정의 한 외부변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주 전 과정을 통해 재구성됨을 강조하는 시각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Hondagneu-Sotelo, 2000). 즉, 젠더 그 자체도 이미 주어진 개념적·실체적 범주가 아니라 이주과정과 맞물려서 새롭게 생성되고 도전받는, 그리고 이주경험의 차별성을 담지해내는 가변적이고 역동적인 요소로서,

이주와 분리될 수 없는 상호구성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젠더와 이주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인 시각의 도입은 연구의 초점을 전체적인 이주경관의 묘사로부터 이주자 개인의 경험과 주체성, 에이전시(agency) 등으로 옮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가령 이주라는 과정을 통해 이주자 개인의 정체성과 그 개인이 맺고 있는 젠더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는 이주자의 계급, 젠더, 국적 등과 같은 사회적 정체성이 어떻게 상호 결합하여 특수한 이주경험을 만들어 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주요 연구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주자 개인의 정체성과 주체성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정체성을 체현해내는(embodiment) 이주여성의 육체와 그들의 젠더정치학이 매개되고 펼쳐지는 주 공간인 가정(home)이라는 미시스케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즉, 국가정책과 세계경제라는 거시스케일의 과정을 주요 분석요인으로 상정했던 기존의 이주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거시적 과정들이 어떤 미시적 결과를 창출하며, 또한 미시적 과정이 어떻게 거시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질문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주제 및 방법론의 전환으로 인하여 연구의 대상이자 분석의 틀로서 스케일에 대한 이론적 정립의 필요성이 이주연구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그 필요성만 제기될 뿐 스케일은 연구가들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리학 내에서 지난 십 수 년 동안 발전해 온 스케일 담론과 그 함의들은 대부분 수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서야 몇몇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에 의해 문제제기가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Marston, 2000; Nagar *et al.*, 2002; Silvey, 2004a, 2004b, 2006 참조).

따라서 본 연구는 페미니스트 이주연구 분야에 지리학의 성과를 접목하는 것을 모색함과 동시에 지리학자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가교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서 본고는 이주와 젠더 연구의 이론과 주요 쟁점들을 페미니스트 이주연구라는 틀 속에서 소개하고 그 속에 함축된 스케일 논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스케일을 둘러싼 오해를 시정하고 스케일 논의가 이주와 젠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을 모색할 것이다.

## 2.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의 이론적 접근

### 1) 이주의 여성화에 대한 개념 재검토

이주와 젠더 연구의 이론적 지형을 고찰하기 앞서 이주와 젠더 연구의 최대 화두인 이주의 여성화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할 듯싶다. 이주의 여성화는 이주가 과거 남성노동자 중심으로 일어났던 것에 반해 최근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이주과정을 주도하는 변화상을 부각시키는 용어이다. 이주의 여성화는 페미니스트 이주연구가들에 의해 소개되었으나 요즘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수용하여 현 이주경관을 특징짓는 보편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주의 여성화라는 용어의 과도한 사용과 일부 무분별한 인용은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반론의 요지는 이주의 여성화라는 구호와는 달리 국제 이주의 현 상황이 여성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도 없으며, 여성의 대규모 이주는 수십 년 전부터 있어온 사실로 최근의 현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통계적 수치는 실제로 이러한 반론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UN 통계에 따르면 여성 이주자는 2005년 전체 국제이주자의 49.6%를 차지하고 있으며 1960년도에도 이미 46.8%를 차지하고 있었다(그림 1).

그러나 이러한 총계는 국제이주 패턴의 역동적 변화

를 섬세하게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주의 여성화는 이주여성의 숫자보다 이주의 양상이 젠더화(gendered)되고 있다는 데 그 본질이 있다. 이주의 젠더화는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여성 이주자가 과거 남성가장의 동반가족인 경우가 많았던 반면, 최근의 여성 이주자는 가정의 생계부양자로, 자발적인 노동이주자로 국경을 넘는다는 점이다. 과거 남성 이주자들이 그러했듯이 여성이주자들의 송금은 본국 경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둘째는 젠더 선별적인 국제 이주 통로가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의 노동을 선별적으로 요구하는 대표적인 분야는 가사노동, 성산업, 유흥업, 상업적 매매혼, 인신매매 등으로<sup>1)</sup> 이러한 부문은 노동과 구인 메커니즘의 성격상 미등록이주가 유난히 많기 때문에 등록된 이주만을 나타내는 통계지표보다 실제로 이주하는 여성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는 이주의 여성화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른바 지역화 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최근 이주와 젠더 연구자들에게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아시아는 성별적 이주의 특징을 더욱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데 그 단적인 예가 아시아 지역 내에서 국제결혼이주 여성의 급증이다. 김현미(2006)는 이주 노동 수용 조건이 유난히 까다로운 동아시아 국가(일본, 한국, 대만)로 이주하기 위해 여성들이 결혼이라는 이주 통로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주 패턴을 지구적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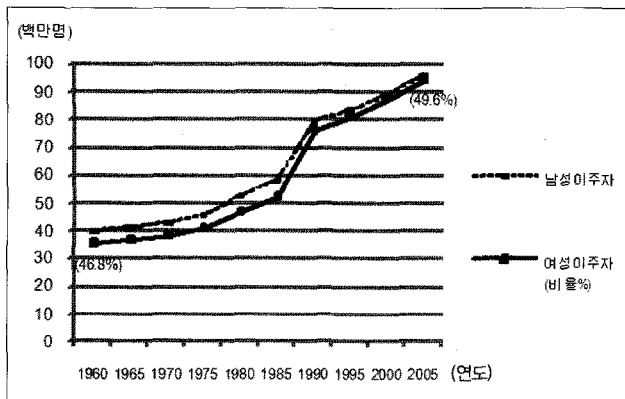


그림 1. 성별 국제이주 추이

(출처: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06, <http://www.un.org/esa/desa>)

케일이 아닌 지역 스케일에서 고찰해 보면 이주의 여성화가 더 극적으로 드러난다. 가령, 전체 인구의 9%를 차지하는 800만 명이 해외 이주자인 필리핀의 경우, 여성 이주자가 58%에 달하며 이들 여성의 63%가 이탈리아에 정착하여 95%가 가사노동 등의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다(www.un-instraw.org). 아시아 여성의 경제넘기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각 지역의 조건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한 결과이지만 대체적으로 빈곤의 여성화와 가부장적 국가의 역할이 동시에 작용한 측면이 크다.

이처럼 전체 이주경관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과 비중 증대라는 양적 측면보다 이주의 메커니즘이 젠더관계의 전 지구적인 확장의 결과로서 나타난다는 질적 측면이 이주의 여성화를 규정하는 근본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의 여성화라는 현상이 양적 메커니즘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으며 이주의 젠더화라는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2) 국제 이주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

이주의 여성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몇 명의 여성이 국경을 넘는지를 알려주는 거시적 지표뿐만 아니라 젠더관계가 어떻게 재규정되며 어떤 통로를 통해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통계적 지표는 이러한 질적인 내용을 보여주기 어려우며, 특히 미시적 스케일에서 형성되는 젠더관계는 다른 방식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주의 여성화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 등의 민속지학(ethnography)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이라는 사회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연구는 데이터 수집에 많은 어려움을 노정하고 있으며 특히 언어 소통의 한계 및 계급차이와 같은 연구자와 연구대상간의 사회적 거리의 격차는 경험연구의 어려움을 배가시키고 있다. 이는 이주의 여성화의 질적인 측면들이 실제 경험연구를 통해 입증되기 어려운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부 페미니스트

이주연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물이 최근 활발하게 출간되고 있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과 가사노동자들을 넘나들며 몇 년간의 현장연구 결과를 차례로 내놓고 있는 Nicole Constable을 위시해서 Rhacel Salazar Parreñas, Pei-Chia Lan, Rachel Silvey, Nicola Piper, Brenda Yeoh, Katie Willis, Shirlena Huang 등은 동남아시아 이주여성들에 대한 심층분석을 내놓으면서 이주의 여성화 연구에 있어서 아시아가 주요 대상지역으로 부각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대체로 이주여성들이 처한 억압적인 환경과 이를 극복하는 여성의 에이전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Patricia Pessar, Sarah Mahler, George Fouron, Nina Glick Schiller 등은 이주여성의 또 다른 주요 송출지인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인권과 시민권 문제, 정치세력화 등에 대한 학제 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외국의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가 거의 대부분 노동이주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는 특수성을 보인다. 많은 국내 연구들은 세계화와 다문화주의라는 분석틀 속에서 이주의 여성화 현상을 진단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소수자로서 이주여성을 받아들이기 위해 한국사회가 제공해야 될 정책을 촉구하는 경향을 보인다(김이선 등, 2006; 이운애, 2006; 설동훈, 2006). 이 밖에도 수많은 단체와 개인 연구자들이 다양한 학문적 배경 위에서 이주의 여성화 현상을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이주의 여성화 현상은 크게 세 가지 층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첫 번째는 거시적 차원에서 이주의 여성화를 유발하는 동인과 구조를 밝혀내려는 경향으로, 세계화와 노동의 성별분업이라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이 주를 이룬다. 두 번째는 초국가주의 담론에 입각한 중범위 규모의 접근으로, 이주여성을 전 지구적 자본주의 재구조화의 피해자로 낙인찍는 것을 거부하면서 국경을 횡단하는 여성들이 만들어내는 초국가적인 사회적 관계망과 이를 통해 이루어가는 대안적인 세계화, 즉 이주여성들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를 내세운다. 세 번째 논의의 방향은 두 번째 논의의 연속

선상에 있지만 특별히 여성의 에이전시를 부각시키면서 미시적 차원의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이주여성들의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 다양한 이주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들의 차별화된 경험과 이들의 의식 변화, 현실을 변화시켜가는 여성들의 주체성과 교섭능력 등이 주요 연구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층위들은 서로 대립되거나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 연구 안에서도 통합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접근법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세 층위를 넘나들며 분석의 틀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의 여성화가 내포하고 있는 다면적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구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보다 통합적인 이해를 위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성이 있다. 세 층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연구 주제들과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거시적 접근

첫 번째 접근은 세계체제이론을 이주의 여성화와 접목시켜 설명하는 입장으로, 이주의 여성화를 노동의 성별분업이 글로벌 스케일에서 재생산 된 결과로 본다. 즉, 노동의 신국제분업으로 서비스 산업으로 특화되는 선진국의 대도시는 고급 노동력을 흡입하는 최고차 서비스 시장과 이들의 소비와 생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저임금 단순서비스 시장으로 양극화 되는데, 자국의 여성노동력이 서비스 노동시장에 편입되면서 이들이 제공해 왔던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 공백이 생기게 되자 이를 제3세계 여성의 유입으로 채우게 된다는 것이다(Sassen, 2002). 여기서 여성이 제공해 왔던 전통적인 서비스의 영역은 주로 가사노동, 육아, 성적 서비스 등 무임금 내지는 저임금 노동이 대부분이며 제대로 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직종에 편입된다. Sassen(2002)에 의하면, 세계화의 기저에는 이러한 '생존회로(Survival circuits)'를 통하여 이동하는 여성들이 있으며 이들은 제1세계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그들의 글로벌 도시가 유지되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동력이다. 국제적인 노동의 성별분업이 여성들 간에도 계급과 인종에 따른 위계화를 가져왔음을 시사하는 Sassen의 연구는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이주 가사노동자의 사례를 통하여 재

생산노동의 국제적인 재배치에 대한 많은 사례연구를 양산하였다.<sup>2)</sup>

Parreñas(2001)는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을 'global servants'라는 다소 도발적인 용어로 묘사하면서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 재구조화의 결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들이 지구촌 시대 새로운 최하층 계급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필리핀 해외고용청(POEW)이라는 국가 기구를 통하여 인력의 해외 수출을 조장하는 필리핀 정부의 외화벌이 정책에 주목하면서, 필리핀 정부가 제1세계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사노동 이주를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Parreñas, 2001). 즉 필리핀 정부의 젠더화된 해외이주정책이 필리핀 여성들을 "전 세계의 하녀"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Zarembka(2002)는 이보다 더 도발적인 용어로 미국으로 이민 온 아프리카 및 남미의 가사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인권침해를 고발하였다. 이들 이주여성이 "미국의 온갖 더러운 일들을 도맡아서 하는 현대판 노예"로 전락하게 된 배경은 세계금융은행(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이 주도하는 경제재구조화 프로그램, 즉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이다(Zarembka, 2002). 그 결과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은 부의 양극화와 빚에 허덕이는 경제파탄을 맞이하였고, 가장의 실직과 고실업률의 짐은 고스란히 여성들에게 전가되는 이른바 '빈곤의 여성화'가 이들 여성을 해외로 내몰게 되었다는 것이다. Sassen(2002)의 연구가 이주여성들을 흡입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고찰하였다면, Parreñas(2001)와 Zarembka(2002)의 연구는 여성을 해외로 떠미는 배출 메커니즘에 대해 고찰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Yeoh and Willis(2005)는 '생존회로'로 이주하는 가사노동자들이 아닌 싱가포르의 전문직 엘리트 여성을 사례로 하여 초국가적 이주가 젠더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외국인 가정부와 보모의 주요 이주 목적지인 싱가포르에서 이들의 도움으로 전문직에 종사하였던 맞벌이 부부들이 중국으로 이민가거나 파견업무를 가게 되면서 명암이 뒤바뀌게 된 상황을 분석하였다(Yeoh and Willis, 2005). 이 연구에서 전문직 여성들은 그들의 커리어와 생활양식을 지탱해 주던 외국인 가정부와 보모가 없어진 새로운

상황에서 가족의 생존을 위하여 '전통적인' 역할로 되돌아가게 된다(Yeoh and Willis, 2005). 이 사례연구는 초국가적 이주가 전통적인 성 역할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으며, 제1세계 엘리트 여성이든지 제3세계 가사노동자든지 이들의 사회적 위치는 남성에 비하여 불안정하고 억압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킨다. 즉,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영위히 불평등한 위치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Yeoh and Willis(2005)의 연구는 이들이 의도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주연구의 정치경제학적 접근에 대한 하나의 반론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Sassen류의 정치경제학적 설명은 경제의 세계화가 이주의 여성화를 추동하고 이주 여성의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동인이라는 논리적 전제를 가진다. 그러나 Yeoh and Willis(2005)가 보여주었듯이 이주의 여성화는 생존회로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주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위치는 경제관계 이외에 젠더관계에 의해서도 구조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는 여타 페미니스트 정치경제학자들과 비슷하게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전 지구적 작동이 여성들을 억압하는 근본 구조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제적 구조주의에서 약간 비껴나 젠더관계가 생산관계를 결정짓는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보다 젠더 중심적인 연구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싱가포르 전문직 여성들을 전문직에서 이탈하여 가사노동에 종사하게끔 만든 것은 싱가포르와 전혀 다른 노동시장의 조건을 가진 중국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에도 일정 정도 원인이 있음을 고려해야 된다. 즉, 경제의 세계화와 가부장적 자본주의라는 보편적 현상도 로컬의 특수성에 따라 차별적인 젠더관계를 조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초국가적 이주와 젠더에 대한 연구가 전 지구적인 스케일뿐 아니라 다양한 로컬 스케일의 과정을 접목하여 분석의 틀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2) 중범위적 접근

국제 정치경제학적 이론과 페미니즘의 접목을 시도한 첫 번째 접근보다 사회·문화적인 분석을 지향하는 두 번째 접근은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논의를 페미니즘 이주 연구에 접목시키는 입장으로, 차이의

정치(politics of difference), 초국가적 연계망(transnational networks), 시민권 논의 및 이주여성의 권력화(empowerment) 등을 중심 주제로 다룬다. 초국가주의 접근은 이주의 동인뿐만 아니라 이주의 젠더화 된 경험과 이주민들이 정착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차원에서 초국가적 이주를 해석한다.

차이의 정치와 이주여성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연구들은 젠더가 이주의 주요한 동인이 되지만 젠더 자체만으로 이주를 특징짓는 것이 아니라 계급과 인종, 국적, 종교, 연령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젠더와 결합하는 양상에 따라 이주경험이 차별화 된다고 본다(Huang *et al.*, 2000; Mandel, 2004; Silvey, 2000). 영국의 무슬림 여성이 계급과 종교, 인종적 차별이라는 다층적인 억압 상황에서 혼성적인 정체성을 통해 정체성의 정치를 구사하는 Dwyer(2000)의 사례연구나 탄자니아에 정착한 인도여성들이 계급과 종족에 따른 차이의 정치를 구사하면서 공적 공간의 이용을 차별화한다는 Nagar(1998)의 사례 연구는 이주여성의 정체성이 다양한 사회적 위치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여성의 국제이주로 인하여 형성되는 초국가적 가족과 이들의 연계망 및 생존전략에 대한 연구도 최근 주목을 받는다. 이러한 연구는 초국가적 이주를 통해 전통적인 젠더관계가 확산되는지, 전복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모색한다. 특히 새로운 초국가적인 친족 및 가족관계망은 이주여성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되기도 하며, 그 자체가 가부장적인 젠더 질서를 공고히 하는 기제가 될 수도 있음이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임안나, 2005; Kalpagam, 2005; Mattingly, 2001; Orozco, 2007; Robinson, 2007; Walton-Roberts, 2004; Yeates, 2005; Yeoh and Huang, 2000 참고). 가령 이혜경 등(2006)은 다양한 통로로 한국으로 이주한 조선족 여성의 사례를 통해 이들이 친정식구들과 긴밀한 연결망을 형성하면서 중국과 한국을 망라하는 초국가주의를 실현해 가는 주체임을 부각시켰다. 이들에게 한국으로의 이주는 가족관계를 국제적으로 확장하고 한국이라는 노동시장을 활용하려는 일종의 가족의 생존전략인 것이다(이혜경 등, 2006). 이러한 시각은 국제결혼이주를 매매혼 내지

는 여성의 인신매매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들 여성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이들의 이주를 견인하는 제1세계 남성과 결혼브로커들을 가해자라고 이분화 한 기존의 결혼이주연구에 대한 새로운 반론으로 해석될 수 있다.<sup>3)</sup> 이러한 인식에 의하면 초국가적 이주는 여성들이 경계를 가로지르는 유동적 주체로 탈바꿈하면서 양쪽 로컬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하여 혼성적이고 초국가적인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다.

그러나 가정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여성의 이주는 남성의 이주와 달리 초국가적인 스케일에서 가족관계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모성의 공백으로 인하여 방치되는 이주여성의 아이들과 노인과 환자 등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집단에게 '돌봄의 위기' (care crisis)가 발생한다는 것이다(Orozco, 2007; Parreñas, 2001). 즉, 제1세계 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돌봄의 공백은 제3세계 여성의 노동으로 채워질 수 있지만 제3세계 여성의 이동으로 인한 돌봄의 공백은 친정식구들에 의해 겨우 채워지거나 아예 공백인 상태로 방치되는 것이다. 모성의 초국가적인 이동은 따라서 '초국가적인 돌봄의 연결망(global care chain)'을 형성하며 이는 가족관계를 통해 유지된다(Mattingly, 2001).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은 초국가적인 가족관계망이 긍정적 의미에서든 부정적 의미에서든 여성의 이주를 견인하는 동력이 됨으로써 연쇄이주를 유발하는 통로임을 지적한다(Heering *et al.*, 2004; Mattingly, 2001). 이러한 지적은 경제중심적인 세계화 이론에 근거한 이주 연구에 대한 또 다른 반론이 될 수 있다. 즉, 이주의 여성화를 세계 경제 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재편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접근이며 실제 이주 경관을 특징짓는 수많은 요소들과 다양한 층위의 행위자들을 간과하는 우를 범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자본주의는 특정 여성노동력을 이동시키는 불가항력이 아니다. 여성은 자신이 처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주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주여성의 네트워크와 가족관계는 이주여성의 선택을 특정한 사회적 맥락 속에 위치지우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주의 주요한 동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초국가주의 논의와 페미니즘 이주연구의 접목은 이주를 둘러싼 젠더 정치로 확장되고 있는

데 이주여성의 정치세력화와 이주민들에 대한 시민권 논쟁 및 이주정책 변화 등을 대표적인 연구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초국가적 이주가 여성들에게 정치권력화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회라고 보면서, 초국가적 이주 경험이 이주 후의 젠더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Dannecker, 2005), 수용국 사회의 시민권 및 다문화주의 논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Yeoh and Huang, 1999)등을 분석한다.

이주 연구에 있어서 초국가주의적 접근은 이주자들이 전출국과 전입국 중 한 가지를 택일하는 것이 아니라 두 로컬에 동시에 접속되어서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연계망을 형성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즉, 이들은 과거의 고향과 현재의 이민의 땅이라는 이중적인 시공간을 해체하여 두 시공이 현재적으로 공존하는 제3의 로컬을 만들어 가는데 여기에는 물리적·인식론적인 공간의 혼성(hybridization)과 양가적인 정체성의 형성이 주요 관심사로 등장한다(Bhabha, 2003). 물리적·인식론적 경계를 뛰어 넘은 이주자들은 사회의 주변공간(marginal space) 또는 사이공간(in-between spaces)을 점유하고 창출하는 주체들이다. Bhabha (2003)에 의하면 이러한 주변적인 위치는 전복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하위주체(subaltern)들의 탈식민성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포스트구조주의 학자들이 찬양하는 주변공간과 시공간 압축(time-space compression)을 통한 탈 영토화(deterritorialization)가 과연 현실에서 전복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지(Appadurai, 2004), 아니면 뿌리내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류사회의 탄압에 더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에 의견의 괴리를 보인다. 젠더와 공간을 연구하는 지리학자들은 대체로 국가경계의 희석과 탈영토화 및 초국가 공간의 등장이 간과할 수 있는 억압의 숨겨진 측면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Mitchell, 1997). 가령 Silvey(2000)와 Mandel(2004) 등은 다양한 여성 집단의 사례 연구를 통해 이동성이 높아지고 경계의 의미가 희석되어 가는 세계화 시대에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집단은 존재하며 이동성은 젠더에 따라 그리고 젠더가 지역과 계급, 인종과 결합하는 방

식에 따라 차별화됨을 보여준다.

초국가적 이주가 제공하는 여성 권력화의 가능성에 대한 논쟁과 동시에 이주를 둘러싼 젠더정치학의 주요 정치적 논쟁지점은 국가의 개입과 역할이다. 시민권과 이주정책의 영역에서 침예하게 대립하는 입장은 탈국가적 입장과 국가의 역할을 여전히 비중 있게 고려하는 입장으로 나뉜다. 전자는 초국가시대 국가의 역할 축소와 탈국가적 시민권의 등장을 주장하는 반면(Ong, 1999), 후자는 경계의 희석을 인정하면서도 경계를 그을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국가가 여전히 이주패턴을 규정하는 주요 에이전시임을 주장한다(김현미, 2006; Ehrkamp, 2006; Leitner and Ehrkamp, 2006; Piper, 2004, 2006; Tyner, 2000). 많은 젠더 연구가들은 이주의 여성화가 지역별, 국가별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국가의 해외이민 송출 및 유치 정책이 성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데 동의한다. 인력의 해외 송출을 국가의 근간 사업으로 펼쳐온 필리핀은 이러한 주장의 단골 사례지역으로 꼽힌다. 필리핀해외고용청이라는 정부기관을 통해 대량으로 저임금 비숙련 노동인력의 해외 취업을 추천해 온 필리핀 정부의 근대화 발전 전략은 다른 아닌 노동의 성별 분업에 근거한 맞춤형 노동 수출이었으며 그 결과 비숙련, 저임금의 유순한 필리핀 여성 노동력이 필리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해외 이주자가 되었다(Tyner, 2000). 세계화와 근대국가 건설이라는 정치적 구호 아래 진행되어 온 필리핀 정부의 이민 전략은 이주여성을 둘러싼 젠더정치가 국가정체성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를 제공한다.<sup>4)</sup>

### (3) 미시적 접근

이주를 복잡다단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내려지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는 사회·문화적 접근은 이주자 개인의 에이전시(agency)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였다. 개인의 에이전시에 대한 관심은 민속지학이나 참여관찰 등의 미시적 질적 연구 방법론이 이주 연구에 도입되면서 분석의 단위가 국가에서 개인의 수준으로 낮아진 것과 큰 연관성이 있다. 미시적 접근은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구조(가령 경제의 세계화와 노동의 국제 분업 체제 변동)에 대한 관심에서 행위를 이끌어 낸 개

인의 선택 과정에 대한 관심으로 그 분석 대상을 이동하게 된다. 연구자의 시선이 이러한 미시적 과정에 머물게 되는 주요 이유는 거시적인 설명으로 해결되지 않는 다양하고 예외적인 현실을 이해하고, 현상이 일어나는 맥락(context)을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이주자의 에이전시를 강조하는 연구들은 여성 이주자들을 세계화의 희생물로 단순화 하거나 변화된 기회를 심분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합리적 경제인으로 간주하는 것을 지양하고, 여성들이 처한 사회적 위치와 맥락 속에서 주체적인 선택을 내리는 존재로, 다층적이고 때로는 상호모순적인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볼 것을 주장한다.<sup>5)</sup>

이주 여성의 에이전시에 대한 관심은 이주연구의 분석 스케일이 국가 중심에서 보다 다원화 된 스케일로 변화된 최근의 지리학 내 연구경향과도 일맥상통한다. 지리학에서 이주 문제는 전통적으로 인구학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따라서 통계학적 단위가 곧 분석 단위가 되었으며 국가 스케일은 이주를 이해하는데 가장 '자연스러운' 분석단위가 되었다. 가령 각 국가별로 전출인구와 전입인구를 계산한다든지 국가별 흡입과 배출요인으로 이주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이주 경향을 개인의 합으로만 합산할 뿐 각 개인이 처한 맥락과 이주의 과정, 그리고 개인별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설명하지 못한다. 국가는 이주정책을 집행하고 이주민의 이동성을 통제하는 강력한 기구임에는 틀림없으며 따라서 국가 스케일에서 조직되는 이주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초국가적 이주는 단순히 국경만을 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로컬에서 다른 로컬로 무수한 경계를 넘나드는 복잡한 과정이다. 특정 이주민 집단은 한 국가 내에서도 특정 로컬로 이주를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그러한 패턴은 로컬의 특수성과 이주민 집단의 특수성이 상호작용한 결과로서 볼 수 있다. 즉, 초국가적 이주는 초국가적 스케일과 국가 스케일뿐만 아니라 보다 작은 스케일, 즉 개인의 몸, 가정, 지역사회 등의 수준에서도 분석되어야 한다.

거시 스케일에 치우친 기존의 이주 연구에 대한 비판은 페미니스트 이주연구가들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이주여성의 몸이 어떻게



이주경관을 규정하는지(Constable, 1997; Hsia, 2007), 가정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이주여성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하는 장이 되는지(Lan, 2003; Silvey, 2004b), 지역사회의 공공장소가 어떻게 이주여성들에 의하여 새롭게 재구성되고 또한 주류사회의 정체성에 도전하는지(Nagar, 1998; Yeoh and Huang, 1998), 초국가적인 가족관계망이 어떻게 초국가적 이주 패턴을 만들어 내는지(Mattingly, 2001) 등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주여성의 에이전시가 이주의 전 과정에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공통적으로 표명한다. 뿐만 아니라 이주와 젠더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중스케일(multi-scalar)과 스케일 상호간의(inter-scalar) 작동을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에이전시와 스케일에 대한 높아진 감수성을 바탕으로 페미니스트 인류학자인 Mahler and Pessar 및 그 동료들은 ‘권력의 젠더 지리학(Gendered Geographies of Power)’이라는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이 분석틀은 그 이름이 시사하는 것처럼 지리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 발전과 적용에 있어서 지리학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 감이 있다.<sup>6)</sup> 특히 스케일 이슈는 지리학 밖에서 중요하게 제기되지만 지리학에서의 연구 성과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스케일에 대한 제한적인 개념화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최근 이주연구의 분석틀인 ‘권력의 젠더 지리학’을 해부하면서 그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는 Massey의 ‘권력의 기하학(power geometry)’에 대한 오해를 시정하고 이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스케일에 대한 인식을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판적 해부를 통해 스케일과 페미니스트 이주연구가 접목되는 지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3.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에서 스케일, 그리고 스케일의 정치

#### 1) ‘권력의 젠더 지리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

‘권력의 젠더 지리학’은 젠더 중립적이던 이주 연구

를 비판하면서 젠더 중심적인 이주 연구에 필요한 핵심개념을 제시한 분석틀이다(Mahler and Pessar, 2001; Pessar and Mahler, 2006). 페미니스트 인류학자인 Mahler와 Pessar는 기존의 이주 연구가 젠더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남성중심적인 분석방법과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이주는 젠더화된 과정이며 그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과정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주를 ‘권력의 젠더 지리학’이라고 묘사하였다. ‘권력의 젠더 지리학’이 지향하는 이주 연구는 스케일, 사회적 위치, 에이전시라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권력의 젠더 지리학’에서 ‘지리학’은 “젠더관계가 다중스케일에서 작동함”(Pessar and Mahler, 2006, 815)을 함축하고 있으며 “스케일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Mahler and Pessar, 2001). ‘사회적 위치’는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친족 및 기타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는 요인들을 통해 창출되는 권력의 위계질서 속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들)”(Pessar and Mahler, 2006, 816)을 의미한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특정 사회적 위치를 가지지만 이는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다. 계급,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국적 등은 다중적인 정체성을 만들어 내며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 위치를 규정하게 된다(Mahler and Pessar, 2001, 446). ‘에이전시’는 이러한 사회적 위치 속에서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 감성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Mahler와 Pessar는 에이전시를 Massey가 말한 ‘권력의 기하학’이라는 용어를 빌려서 설명한다. Massey(1994)는 시공간 압축이라는 근현대의 특수한 조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성 향상의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 및 소통에 대한 개인과 집단의 접근성을 차별화 시켰으며, 시공간 압축의 결과로 이익을 얻는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에 대한 권력을 확보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누가 이동하고 누구는 이동하지 못하는냐가 아니라 누가 이동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냐이다(Massey, 1994, 149). Massey는 시공간 압축이라는 조건이 사람들 간의 공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이것이 권력관계에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권력의 기하학’이라는 공간적 은유를 사용하였으며 이 은유가 핵심적으로 암시하는 것은 물

리적 공간과 사회적 권력은 상보적인 관계, 즉 공간관계가 권력을 창출하며 동시에 권력관계는 공간관계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Mahler와 Pessar가 에이전시를 설명하기 위하여 ‘권력의 기하학’을 인용한 것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Massey의 저서를 읽어보면 권력의 기하학이라는 개념이 에이전시보다 오히려 스케일이나 사회적 위치와 더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연구자들이 Massey의 저작에 대해 불충분하게 이해를 했거나 아니면 오해를 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들은 “시공간압축이 정보 및 인력, 물자의 교류와 연계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서 각 사람들을 상이한 위치에 포진시킨다”(Pessar and Mahler, 2006, 816)는 Massey의 주장을 소개한 뒤, “그러나 Massey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에이전시를 전면에 내세우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이러한 힘과 과정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거슬러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는 점이다”(Pessar and Mahler, 2006, 816)라는 Massey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을 제시하면서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제시한다.

(Some individuals) initiate flows and movement, others don't; some are more on the receiving-end of it than others; some are effectively imprisoned by it...[There are] groups who are really in a sense in charge of time-space compression, who can really use it and turn it to advantage, whose power and influence it very definitely increases [such as media moguls and the business elite]... but there are also groups who are also doing a lot of physical moving, but who are not 'in charge' of the process in the same way at all.” (Pessar and Mahler, 2006, 816, cited from Massey, 1994, 149).

이들이 소개한 인용문만 보면 시공간 압축이라는 글로벌한 과정에 대하여 각 개인과 집단이 차별화된 대응을 보이며, 따라서 이들의 에이전시가 구조적인 과

정에 대하여 차별화 된 결과를 도출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전에서 인용문의 앞뒤를 읽어보면 이들이 Massey를 잘못 또는 과잉 해석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위의 인용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붙여서(밑줄 표시) 연결하면 다음과 같다.

... the power geometry of time-space compression. For different social groups, and different individuals, are placed in very distinct ways in relation to these flows and interconnections. This point concerns not merely the issue of who moves and who doesn't, although that is an important element of it; it is also about power in relation to the flows and the movement. Different social groups have distinct relationships to this anyway differentiated mobility; some people are more in charge of it than others; some initiate flows and movement, others don't; some are more on the receiving-end of it than others; some are effectively imprisoned by it...(이하의 위의 인용문과 동일) (Massey, 1994, 149).

위의 인용문 전후의 내용은 시공간압축이 가져온 공간경험의 변화가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으며, 누군가는 보다 큰 수혜자인 반면 누군가는 수혜를 거의 받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만 받는다는 구체적인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Mahler와 Pessar가 해석하는 것처럼 시공간압축이 가져온 차별화된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에이전시를 발휘하여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변화시킨다는 것(Mahler and Pessar, 2006, 817)은 (Massey도 궁극적으로는 동의할지도 모르지만) 인용한 부분에서 Massey가 전달하고자 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Massey의 ‘권력의 기하학’이 강조하고자 한 것은 시공간압축이 집단 간의 불균등한 권력관계를 더 첨예화한다는 것이며 이는 인용문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the mobility and control of some groups can actively weaken other people. Differential mobility can weaken the leverage of the already weak. The time-space compression of some groups can undermine the power of others. (Massey, 1994, 15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권력의 기하학'에서 사람들마다 상이한 이동성을 만들어 내는 기제는 개인의 에이전시 보다는 오히려 개인이 속한 사회적 위치인 듯이 보인다.

에이전시에 대하여 Mahler와 Pessar가 Massey를 과잉 해석했다면, 스케일에 대해서는 과소 해석했다. Mahler와 Pessar는 Massey의 연구를 에이전시를 설명하는데 국한시켜 소개하였지만 사실 Massey의 책은 젠더의 공간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으로 권력이 스케일과 공간, 그리고 장소를 통해 작동함을 주장하고 있다. Massey는 권력관계가 다중적인 스케일에서 형성되며 따라서 '권력의 기하학'은 평면이 아니라 다층적임을 암시하고 있다.

'The spatial' then, it is argued here, can be seen as constructed out of the multiplicity of social relations across all spatial scales, from global reach of finance and telecommunications, through the geography of the tentacles of national political power, to the social relations within the town, the settlement, the household and the workplace. It is a way of thinking in terms of the ever-shifting geometry of social/power relations, and it forces into view the real multiplicities of space-time (Massey, 1994, 4)

Massey에 대한 오해 내지는 부적절한 해석이 '권력의 젠더 정치학'이 범하고 있는 첫 번째 오류라면, 두 번째 오류는 스케일에 대한 제한된 상상력이다.<sup>7)</sup> 이들에 의하면 스케일이 마치 '주어진' (given) 또는 이미 '고정된' (fixed) 몇 개의 층인 것처럼 묘사된다. '권력

의 젠더 지리학'을 이용한 사례 연구들 역시 비슷한 인식을 보여준다. 가령, 스케일의 차이를 글로벌과 로컬의 관계로 환원시킨다거나, 이주자들의 권력화 양상을 로컬, 내셔널(national), 트랜스내셔널(transnational)이라는 분절된 위계질서 상에서 파악하면서 트랜스내셔널이 내셔널보다 더 진보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Pessar, 2001) 등이다. 이러한 관찰은 비록 틀린 것은 아니지만 스케일에 대한 제한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리학과 페미니스트 이주연구 간에 소통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 2)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와 스케일의 접목

지리학에서 스케일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지도학이나 GIS 분야에서는 데이터 분석의 단위 (resolution)로, 자연지리 등에서는 연구대상의 공간적 규모나 범위로, 정치지리에서는 권력 체제의 층위 등을 의미하던 스케일이 연구가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 세계화 담론과 글로벌-로컬 논쟁과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 축소와 시민사회 네트워크 등에 관한 논쟁이 불거지면서 정치, 경제, 사회적 과정들이 작동하는 '층위'와 '범위'가 논쟁의 주요 대상이 되면서부터였다. 공간적 과정과 결과에 초점을 두는 학문의 성격상 지리학자들은 층위에 따라 연구대상의 영향력과 작동과정이 달라진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스케일을 전통적인 지리학의 연구주체인 공간, 장소 등과 더불어 핵심적인 개념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 사회구성주의 인식론의 도입으로 스케일은 보다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며 과정적(processual)인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즉, 스케일은 고정되거나 주어진 것, 또는 분절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며 가변적이며 상호 연결되어 작동하는 체제인 것이다. 정치경제 지리학자들은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변화와 연동된 조절 스케일 체제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스케일의 생산(production of scale)이 어떻게 자본주의 순환을 도모하는지, 또는 모순을 양산하는지를 탐구하였다(Swyngedouw, 1997). 이들에 의하면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글로벌이라는 자본순환의 스케

일과 초국가적 조절기구의 조합으로 작동하는 자본주의 축적체제인 셈이다.

다소 경제중심주의 접근을 취하는 이들과는 달리 정치, 사회, 문화지리학 분야에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한 스케일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 of scale)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Marston, 2000). 이들에 의하면 글로벌, 로컬 또는 내셔널 스케일은 행위자들에 의해 '발견'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 된다(constructed). 마치 젠더가 사회적 구성물인 것처럼 스케일 역시 협상과 투쟁의 대상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따르면, 이주 여성들의 초국가적 NGO가 '만들어 낸' 글로벌 스케일은 초국가적 기업이나 통치 조직이 만들어 낸 글로벌 스케일과 그 영향력이나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 범위 등에 있어서 '상이한' 스케일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즉, 스케일은 하나의 절대적인 동력(가령 세계화)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무수하게 많은 스케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스케일의 생산은 정치적 활동이다.

스케일의 정치란 스케일의 창출을 통해 유리한 정치적 기회구조를 만들어 내거나 가용자원이나 네트워크의 범위를 변화시키는 활동을 지칭한다. 가령 초국가적 NGO의 등장은 활동무대를 국가 경계 너머로 확장시킴으로써 국가 내의 탄압적인 정치 환경에서 벗어나고, 더 많은 지지자를 지구 반대편에서 불러 모으거나, 또는 국가보다 상위 권력기관(가령 UN이나 국제인권기구 등)을 동원하여 국가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스케일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이민여성들이 초국가적 NGO를 조직하거나 초국가적 NGO의 도움을 받아 '인권'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내세워 자국의 가부장적인 젠더 질서에 도전하는 것 역시 이러한 스케일의 정치이다(Pessar, 2001; Silvey, 2004b 참조).

스케일과 스케일의 정치는 이주와 젠더 연구에서 특별히 더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젠더정치와 젠더의 차이는 스케일의 작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Silvey, 2004a). 뿐만 아니라 이주와 젠더과정 자체가 스케일을 창출하기도 한다. 특히 페미니스트 접근은 기존의 이주 연구가 주목하지 않았던

스케일, 특히 미시스케일의 역할과 작동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제시함으로써 스케일 논의를 심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스케일에 대한 연구를 이주와 젠더연구 일반에 접목하는 것은 긴요한 간학문적 노력의 일환이 될 수 있다.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에서 스케일이 접목될 지점은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본 논문에서는 특별히 경계넘기(border crossing)와 공적/사적 공간의 분리(division of public and private spaces)라는 페미니스트 공간 연구의 두 가지 핵심 주제가 스케일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 (1) 경계넘기와 스케일의 정치

이동하는 여성의 몸은 스케일을 창출하거나 기존의 스케일 질서를 교란함으로써 스케일의 정치를 구사한다. 이주의 여성화가 상징하는 것처럼 여성이 국경을 대거 횡단하는 현상은 가부장적 근대국가가 만들어 놓은 국가경계와 그에 결부된 정체성의 결합을 깨는 행위이다. 국경을 넘어 이주하는 여성들이 만들어 낸 초국가적 스케일은 여성의 권력화(empowerment)를 획기적으로 도모하기도 한다. 이주여성의 초국가적 NGO는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과테말라 난민여성들의 경험을 사례로 연구한 Pessar(2001)는 난민이라는 초국가적 정체성을 갖게 된 여성들이 자국의 가부장적 굴레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여성에서 여성주의자로 변모하는 과정을 소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난민 여성들의 혹독했던 이전 젠더 경험, 즉 가부장적 국가 체제가 유포하는 가족이데올로기가 정당화 해 온 폭력과 억압은 정치적 자각을 일깨우는 자양분이 되었다. 글로벌 시민사회의 성장과 여성의 인권에 대한 높아진 기준은 난민이 된 이들 여성이 세력화 하는데 본국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으며, 국경을 넘나드는 생사를 견뎌낸 이들은 이들의 에이전시를 극대화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의식을 싹트게 했다. 그러나 결국 본국으로 송환된 난민여성들은 또다시 성차별적인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서 가부장적 성별분업 질서에 귀속되는 결과를 맞이하였다. 이 사례 연구에서 Pessar는 초국가적인 스케일

을 해방과 진보의 스케일로, 국가 및 로컬 스케일을 보수와 억압의 스케일로 이분화하는 듯한 자세를 견지한다. Pessar의 연구는 스케일에 따라서 달라지는 정치기회구조를 잘 포착하였지만 스케일에 대한 이분법적인 시각을 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스케일과 공간, 그리고 그 스케일들 간의 상호작용을 간과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비하여 일부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은 스케일에 대한 보다 진일보한 분석을 내어놓았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사노동자로 국경을 넘는 인도네시아 이주여성들을 사례로 연구한 Silvey(2004b)는 로컬에 대한 글로벌 스케일의 우위를 가정하는 기존의 연구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면서 글로벌-로컬의 이분법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녀는 이주의 여성화를 경제의 세계화의 결과물로서 가정하는 초국가주의 논의를 남성중심적 연구라고 비판한다. 특히 이주여성의 정치세력화가 초국가화되는 것이 늘 진보적이고 여성들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즉, 초국가적 NGO가 인권과 여성주의 담론을 끌어들이어 이민 가사노동자들을 공공정책의 대상으로 공론화시킨 것은 이들의 안전과 권의 신장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이들은 '이주여성'이 아닌 '노동자'로서 일반화하는 것은 또 다른 성차별적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Silvey 2004b).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치부되던 재생산은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공적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고 이로 인해 가사노동자는 임금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제외되어 인권침해, 성폭력 및 부당한 대우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초국가적인 가사노동자 NGO는 가사노동을 사적노동으로 규정하여 그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불법행위를 묵인해 온 가부장적 국가에게 '글로벌 스탠다드' 및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압박을 가하는 스케일의 정치를 구사해 왔다. Silvey 역시 사례연구에서 초국가적인 여성활동가들의 활약을 소개하고 있다. Silvey의 비판 지점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스케일의 정치가 간과할 수 있는 전제이다. 사적공간 및 재생산 영역의 공론화는 여성을 재생산과 사적영역에 묶어두는 전통적인 이분법을 인정함으로써 '여성의 일'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오히려 강화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Silvey, 2004b). 따라서 물리적 경계넘기 자체가 여성의 해방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경계넘기를 통해 또다른 경계를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진정한 여성의 권력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경계를 넘나드는 여성이 스케일 논의에 던지는 두 번째 함의는 여성의 몸과 가정과 같은 미시스케일에 대한 관심의 촉구이다. 이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연구가 국가나 글로벌 경제와 같은 생산 영역에 치우쳐 있던 것에 대한 비판이자 보완의 역할을 할 수 있다(Devasahayam *et al.*, 2004; Silvey, 2004b). 이주여성 가사노동자의 노동은 가정이라는 사적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이들의 섹슈얼리티와 몸은 젠더선별적인 노동의 도구이자 목표 및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성별분업과 불평등은 몸과 가정이라는 미시적 스케일에서 더욱 첨예하게 드러나며, 이러한 젠더관계가 전 지구적으로 확장된 것이 오늘날의 이주의 여성화라는 현상임을 감안하면 미시스케일에서 구축되는 젠더관계의 양상에 대하여 보다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몸과 가정이라는 미시 스케일은 그동안 주목받지 않았던 연구영역이라는 점 외에도 기존의 스케일 논의가 거시적이고 남성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비판하는 지점이 되기도 한다. 거시적 스케일에서 다루어왔던 이주 연구는 국가별 인구 유출입 현황과 전 세계적 총량에 국한된 분석을 제시해 왔다. 이러한 분석은 젠더선별적인 이주의 경향을 포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왜 여성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는지, 왜 특정 지역과 부문으로 여성의 이주가 집중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특히 초국가적 맥락에서 특정 로컬과 로컬의 연결이 중요해 지고 있는 현대의 이주경관에서 여전히 국가경계를 중심으로 이주패턴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자칫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미시와 거시 스케일을 포괄하는 다중스케일적(multi-scalar) 접근은 현대 이주 연구의 유용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

미시적 과정에 대한 관심의 환기는 그동안 많은 페미니스트 연구가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지만 미시적 스

케일이 거시적 스케일과 접목되는 정교한 사례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연구는 미시적 경험의 기술에 머물러 있다. 즉, 여성들의 경험을 미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여성의 입장에서 이주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간의 연구가 거시적 과정에 치우쳐 있었고 여성과 재생산의 영역이 설명에서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젠더관계는 단순히 미시적/재생산 영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거시적·생산 영역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양 쪽을 아우르는, 즉 연구방법에 있어서 경계를 넘나드는 다중스케일적 접근이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이러한 접근은 공적·사적 경계허물기를 주장하는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그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 (2) 여성이주자의 공적·사적 경계허물기와 스케일의 재구성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이 페미니즘 담론에 가장 크게 기여해 온 부분을 꼽으라면 공적·사적 공간의 분리와 젠더관계의 구성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경험적 연구일 것이다. 서구의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은 서구 근대가 공적·사적 영역의 이분법에 기초하여 형성되었으며 젠더관계는 이러한 이분법에 근거하여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왔음을 밝히고 있다. 가령 서구의 시민권은 공적 공간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으며 공적 공간에 대한 접근성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백인 남성에게만 주어진 권리였으며 여성은 흑인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공적 공간에 대한 접근에서 배제되어 왔다는 것이다. 특히 서구의 중산층 교외화는 여성을 주변과 고립된 교외의 주거지에 묶어두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여성들의 이동성 저하 및 불평등한 성별분업의 심화를 야기하였다. 여성을 가정에 묶어두는 장치는 비단 도시계획 및 건축구조에 국한되지 않는다. 각종 상술과 이데올로기들 역시 여성을 '가정의 천사'로, '근대적인 가정의 매니저'로, '양육에 헌신하는 엄마'로 규정하면서 여성의 가정화(domestication)를 조장하였다. 이러한 상징적·물리적 젠더 구성은 여성을 사적영역 및 재생산 영역에 귀속시켰으며 공적영역과 생산의 영역은 남성의 영역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합의가 팽배하게 되었다.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은 이러한 젠더분리가 어떻게 공간적으로 재현되고 조장되는지를 연구하면서, 젠더불평등을 조장하는 핵심적인 공간적 과정으로 공적·사적 공간의 분리를 지목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공적·사적 공간의 분리가 모더니즘 기획의 근간이 되며 이는 모더니즘의 남성중심성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의 분리가 가부장적 스케일 체제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주목받지 않았다. 근대국가 체제는 국가와 가장이라는 가부장을 중심으로 전자에 대한 후자의 충성과 노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가장이 '국가를 위하여'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돌봄노동이 필수적이며 당연시 된다. 따라서 가장의 노동은 공적이고 가치가 매겨지는 유급노동이 되는 반면, 여성의 재생산 노동은 사적이므로 가치가 매겨지지 않는 무임금 노동이 된다. 근대국가 체제하에서 만들어진 도시와 각종 하부구조들은 이러한 공적노동의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사적노동을 보이지 않게 숨기는데 공헌을 한다. 수많은 이주여성들이 국경을 넘어 가사노동자로, 보모로, 엔터테인먼트로 활동하지만 이들은 공적인 지위를 부여받기는커녕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남성 이주노동자들이 인종주의를 유발시키거나 사회의 새로운 불만세력으로 지목당하면서 부정적인 감시를 받는 것과 대조되는 지점이다. 사적영역과 재생산에 대한 과소평가 내지 무시하는 학문적 관행에도 영향을 미쳐 학문적 대상으로 적절치 않은 주제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퍼뜨려 왔다. 따라서 국가와 생산이라는 공적활동이 매개되는 국가 및 초국가 스케일이 자연스럽게 분석의 단위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사적영역과 재생산의 스케일은 생산의 스케일에 종속되어 있다는 가정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모든 통계자료는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여 국가와 그 하부단위 스케일에서만 데이터를 조직하며 재생산에 관한 데이터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제공하고 있다(Women and Geography Study Sgroup of the IBG, 1986). 따라서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파악하기 힘든 젠더관계와 재생산은 대안적인 방법론에 의 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근대적 이분법이 공간과 스케일을 이원화시키는 내

용을 도식화하면 (표 1)과 같다. (표 1)은 생산과 재생산으로 이원화된 근대적 인식과 사회체제가 그에 결부된 공간과 스케일의 이분법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주체(갑)의 영역은 객체(을)를 규정하며 따라서 우위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된다. 생산에 우위를 두는 인식하에서는 당연히 노동이주가 주목을 받으며 이주의 주체인 남성이 부각된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은 이러한 이분법이 주체(Master Subject)에 의해 임의적으로 규정된 이데올로기이며 실제 세계에서 생산과 재생산은 상호의존적이며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관련된 공간과 스케일 역시 분리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McDowell, 1999; Mitchell, 2000; Rose, 1993; Staeheli, 1996). 이 입장에서는 생산과 재생산이 원인과 결과의 단선적인(linear) 관계로 존재하지 않으며 생산과 재생산 모두 사적이며 동시에 공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비판은 이주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 기존의 남성중심적 이주 연구가 생산과 공적 공간 및 거시

스케일에 집중된 노동이주 연구를 생산하였다면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는 그 반대인 재생산과 사적 공간 및 미시 스케일을 연구의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다. 결혼이주가 학문적 관심을 받게 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이러한 주제 선정은 그 자체가 학문적 실천의 성격을 지닌다. 즉, 남성중심적 연구가 소외시켰던 영역을 부각시킴으로써 이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사실들을 드러내고 허점들을 들추어내는 학문적 실천 전략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남성과 여성의 가부장적 이분법을 수용하고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동시에 그들이 비판하고 있는 남성에 의한 여성의 소외와 마찬가지로의 오류, 즉 여성에 의한 남성의 소외를 조장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Mitchell, 2000). 그 한 예가 결혼이주를 재생산의 틀 안에서만 연구하는 것이다. 즉 노동이주는 경제 또는 생산, 남성의 영역으로, 결혼이주는 문화 또는 재생산, 여성의 영역이라는 이분법에 암묵적으로 동조한 것이다(Constable, 2003). 이는 노동이주와 결혼이주를 분리된 틀 안에서 다루며 여성이주자를 노동자와 아내로 이분화하는 결과를 낳았다(Piper, 2003). 이주노동자인 여성은 정착국의 남성과 결혼하여 결혼이주자가 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적 정체성을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자체가 근대적 이분법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반증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분법을 극복하는 것이 요구되며 그 한 방법이 양쪽의 경계를 오가면서 이분법을 무너뜨리는 이주 여성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이주연구 분야에서 공적·사적 영역의 경계를 넘는 여성주체에 대한 연구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사례로 대부분 이루어져 왔다. 가사노동자에게 있어서 가정은 재생산의 공간인 동시에 생산의 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가부장적 경제 질서가 가치를 매기지 않았던 가사노동을 통해 임금을 받음으로써 생산과 재생산, 임금과 무임금이라는 이분법을 교란하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 즉, 가정이라는 사적공간을 직장 삼아 재생산 노동을 담당하면서 임금을 받는 입주 가정부들은 전통적인 공적·사적 공간과 그에 결부된 생산·재생산 또는 임금·무임금 노동의 경계를 허물면서 공적·사적 공간의 분리라는 강고한 경계짓기를 기반으로 구

표 1. 근대적 이분법이 만들어 낸 공간과 스케일, 이주형태의 이분법

사회적 위치	주체(갑)	객체(을)
이분법의 예*	정신	육체
	일	여가
	일터	가정
	인간	동물
	문화	자연
	문명	야만
	백인	흑인
	이성	감성
	합리성	비합리성
	바깥	안
	남성	여성
주요활동*	생산	재생산
결부된 공간*	공적 공간	사적 공간
결부된 스케일	거시 스케일	미시 스케일
이주형태	노동이주	결혼이주

\* Rose(1993)가 제시한 근대적 이분법과 공간을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Rose의 연구를 소개하고 적용한 McDowell(1999)과 Mitchell(2000)의 설명을 참고로 하였다.

축된 가부장적 경제 질서의 허점을 들추어낸다.

공적·사적 공간의 분리가 거시·미시 스케일의 이원화와 접목되어 있다는 사실은 공적·사적 공간의 이분법을 깨뜨리는 저항이 바로 거시·미시 스케일을 교란하는 스케일의 정치와 결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이주여성들에 의한 공적·사적 경제 허물기에 초점을 맞춘 채 이러한 젠더 정치학이 스케일의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은 거의 주목하지 못했다. 전 지구적인 노동의 성별분업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노동관계의 재편으로 조장되기도 하지만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초국가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세계화에 의해서도 조장된다. 특히 이주여성들의 초국가적인 가족관계망과 이를 통한 연쇄이주가 현 단계 이주의 여성화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시적인 가족관계 및 사적영역을 통한 세계화 및 글로벌 스케일의 구축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소개한 Mattingly (2001)의 '초국가적인 돌봄의 관계망'이나 이해경 등(2006)의 사례연구에서 등장하는 조선족 여성의 친정식구 연결망에 의한 연쇄이주 등은 사적영역을 통한 공적영역의 재구조화 및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스케일의 구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초국가적 가족에 대한 연구가 함의하는 것은 가족관계라는 사적영역과 전 지구적 노동분업이라는 공적영역이 연결되는 동시에 그와 결부되었던 미시스케일과 거시스케일의 과정이 상호 연관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가 거시스케일이 미시스케일의 과정을 창출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면, Mattingly(2001)와 이해경 등(2006)의 연구와 같은 사례들은 반대의 경우를 제시함으로써 미시스케일에 대한 거시스케일의 절대적 우위가 늘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스케일간의 복잡한 연관성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4. 결론

본 논문은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와 지리학의 소통 가능성을 스케일을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모색하였

다. 이주연구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은 기존의 이주 연구가 간과했던 미시 스케일의 과정을 부각시키고 미시스케일과 거시스케일이 교차하는 지점들을 밝혀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주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페미니스트 지리학과 스케일연구는 공적·사적 공간과 젠더의 재구성이나 이주여성들의 스케일 정치 등과 같은 유용한 개념들을 제공함으로써 페미니스트 이주연구에서 중요한 하위학문분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주여성의 스케일의 정치를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어느 스케일에서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거시스케일이든 미시스케일이든 어느 스케일이 중요한지를 따지는 것은 논쟁을 위한 논쟁만을 생산할 뿐 실제 현안의 이해와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스케일의 정치는 이주와 젠더의 역동적인 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개념적 도구이지 그 자체가 학문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주와 젠더를 이해하는데 왜 스케일이 개입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스케일이 지리학의 개념적 도구로 등장할 때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스케일은 지구화와 지방화 논쟁 와중에 제기된 개념이며, 지구화와 지방화의 과정을 스케일의 생산과 사회적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조망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스케일이 생산되고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스케일의 생산을 둘러싼 과정이 정치적 과정이 됨을 의미한다. 이는 운명적으로, 또는 구조적인 힘에 의한 불가항력으로 종종 '가정' 되는 세계화가 실상은 다양한 행위주체들에 의한 협상과 스케일의 생산으로 구성되는 구체적인 정치적 과정이며, 심지어 제3세계 이주여성들에 의해 '아래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이다. 즉, 초국가적 기업과 초국가적 국가기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세계화 이외에도 다양한 세계화 담론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동안 학문적 관심대상도 아닐 정도로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던 제3세계 이주여성도 세계화의 주요 행위주체가 됨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이주여성의 스케일의 정치는 몸과 가정과 같은 사적이면서 미시적인 스케일로 연구를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학문적 연구대상의 범위를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페미니스트 연구가들은 몸과 가정이 단순히 사적인 공간, 따라서 정책과 연구의 대상에서 배제된 공간이 아니라 공적인 관계가 매개되는 곳을 누차 강조하여 왔다. 공적·사적 공간의 이분법을 깨기 위한 학문적 노력이 사적공간에 대한 고찰에서 시작되는 이유는 '사적'이라고 규정된 것을 공론의 장으로 옮기는 행위 자체가 정치적·학문적 실천이기 때문이다. 공적·사적 공간의 이분법이 거시적·미시적 스케일의 이분법과 결합되어 있다는 지적은 젠더관계가 현실세계에서 구축된 양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 줄뿐 아니라 페미니스트 연구의 비판 지점을 보다 정교하게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사적 공간에 대한 공적 공간의 우월성은 미시 스케일에 대한 거시 스케일의 우위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사적영역·미시스케일·덜 중요한 영역'과 '공적영역·거시스케일·중요한 영역'이라는 공고한 이데올로기를 구축하였다.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자들은 이러한 이분법이 허상임을, 실제로는 수많은 여성(과 남성)들에 의한 다양한 경계넘기가 존재해 왔으며, 제3세계 이주여성이라는 하위주체들이 만들어 가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를 통해 끊임없이 교란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제1세계 아이들과 노인들을 돌보기 위하여 정착 자신들의 아이들은 남의 손에 맡기고 국경을 넘는 제3세계 가사노동자들은 가부장적 노동분업의 세계화와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몸으로 체현하는 존재들이다. 이들의 보이지 않는 노동을 통하여 제1세계의 가정과 고용이 유지된다는 사실은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이, 미시스케일과 거시스케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접합되어 있음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이주여성의 몸과 가정과 같은 미시스케일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새로운 연구주체를 던져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 시대 젠더관계의 역동적 구성을 면밀하게 드러내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 註

- 1) 스위스의 경우, 유흥업소 종사 여성에게 자유로이 비자를 발급하는 정책을 펼친 결과 도미니카 공화국 여성들이 자국의 성산업으로 유입되었다. 반면 스페인의 경우, 다른 노동 분야에 외국 여성 노동자의 진입을 철저히 규제하면서 가사노동 분야는 자율화함으로써 외국 여성이(고학력 여성일지라도) 가사노동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Paiewonsky, 2007). 한국의 경우 여성이주자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몇몇 분야에 한 해 특정 인종의 여성들을 유입하고 있다. 가정 가사노동 비자는 한국계 중국인에게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발행하며(권종화, 2005), 호텔유흥업에는 필리핀 여성들을 주로 받아들이는 것 등이다.
- 2)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가로는 Barbara Ehrenreich and Arlie Russell Hochschild, Rachel Salazar Parreñas, Nicole Constable, Pei-Chia Lan 등이 있으며, 지리학 내에서는 Brenda Yeoh, Shirlena Huang, Rachel Silvey, Katie Willis, Doreen Mattingly 등이 있다.
- 3) 국제결혼을 개인과 가족의 전략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아시아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 연구들은 *Indian Journal of Gender Studies*, 2005, 12(2&3)에 특집으로 실려 있으며 Nicole Constable의 최신 편집서인 *Cross-Border Marriages: Gender and Mobility in Transnational As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hiladelphia, 2005)에도 수록되어 있다.
- 4) 젠더와 국가 건설에 관한 비슷한 맥락의 연구로는 Fournon and Schiller (2001), Silvey(2004), Mountz(2003) 등을 참고할 것
- 5) 이주여성의 에이전시를 강조하면서 초국가적 이주를 여성들의 능동적인 선택으로 보는 연구물로는 Barber(2000), Constable(2003, 2005) 등이 있다. 그 밖에도 Burgess(2004) 등이 일본 내 결혼 이민 여성들의 에이전시를 재조망하고 있다.
- 6) 이들의 연구에 동참한 유일한 지리학자는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자인 Rachel Silvey이다. 이들의 연구를 인용하는 소수의 지리학 연구물에서도 이 개념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와 활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리학 밖에서는 많은 연구가들이 이 분석틀을 이론적 배경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Mahler와 Pessar가 의도했던 것보다 제한적인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듯하다. 그 원인 중 하나가 '권력의 젠더 지리학'을 구성하고 있는 중심개념인 스케일에 대한 이해와 정교한 분석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7) 스케일에 대한 제한된 상상력은 Massey에게서도 발견된다.

文獻

- 권종화, 2005, 한국 내 필리핀 이주자 공동체의 형성과 의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이선 · 김민정 · 한진수,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0, 10-37.
- 나병철(譯), 2003, 문화의 위치: 탈식민주의 문화이론, 소명출판, 서울(Bhabha, H. K.,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Routledge, New York).
- 설동훈, 2005, 국제결혼이주 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이윤애, 2006, “결혼으로 이주한 전북지역 외국인 여성 생활실태 그리고 정착방안,” 국제결혼을 통한 전북 지역 이주여성의 올바른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전북여성단체연합, 18-61.
- 이혜경 · 정기선 · 유명기 · 김민정, 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5), 258-298.
- 임안나, 2005, 한국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의 가족관계와 초국가적 연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원현 · 채호석 · 배개화(譯), 2004, 고삐 풀린 현대성, 현실 문화 연구, 서울(Appadurai, A., 1996,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Barber, P. G., 2000, Agency in Philippine women’s labour migration and provisional diaspora,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23(4), 399-411.
- Burgess, C., 2004, (Re)constructing identities: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as potential agents of social change in a globalizing Japan, *Asian Studies Review*, 28(3), 223-242.
- Constable, N., 1997, Sexuality and discipline among Filipina domestic workers in Hong Kong, *American Ethnologist*, 24(3), 539-558.
- Constable, N., 2003, A transnational perspective on divorce and marriage: Filipina wives and workers, *Identities: Global Studies in Culture and Power*, 10, 163-180.
- Constable, N., 2005, *Cross-Border Marriages: Gender and Mobility in Transnational As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hiladelphia.
- Dannecker, P., 2005, Transnational migr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gender relations: the case of Bangladesh labour migrants, *Current Sociology*, 53(4), 655-674.
- Devasahayam, T.W., Huang, S., and Yeoh, B., 2004, Southeast Asian migrant women: navigating borders, negotiating scales, *Singapore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25(2), 135-140.
- Dwyer, C., 2000, Negotiating diasporic identities: young British South Asian muslim wome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23(4), 475-486.
- Ehrenreich, B. and Hochschild, A. R., (eds.), 2002, *Global Woman: Nannies, Maids,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Metropolitan Books, New York.
- Ehrkamp, P., 2006, “We Turks are no Germans”: assimilation discourses and the dialectical construction of identities in Germany, *Environment and Planning A*, 38, 1673-1692.
- Fouron, G. and Schiller, N. G., 2001, All in the family: gender, transnational migration, and the nation-state, *Identities: Global Studies in Culture and Power*, 7(4), 539-582.
- Heering, L., van der Erf, R., and van Wissen, L., 2004, The role of family networks and migration culture in the continuation of Moroccan emigration: a gender perspective,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0(2), 323-337.
- Hondagneu-Sotelo, P., 2000, Feminism and migration,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71, 107-120.
- Hsia, H. C., 2007, Imaged and imagined threat to the nation: the media construction of the ‘foreign brides’ phenomenon’ as social problems in Taiwan, *Inter-Asia Cultural Studies*, 8(1), 55-85.
- Huang, S., Teo, P., and Yeoh, B., 2000, Diasporic subjects and identity negotiations: women in

- and from Asia,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23(4), 391-398.
- Kalpagam, U., 2005, 'America Varan' marriages among Tamil Brahmins: preferences, strategies and outcomes, *Indian Journal of Gender Studies*, 12(2 and 3), 189-215.
- Lan, P. C., 2003, Negotiating social boundaries and private zones: the micropolitics of employing migrant domestic workers, *Social Problems*, 50(4), 525-549.
- Leitner, H. and Ehrkamp, P., 2006, Transnationalism and migrants' imaginings of citizenship, *Environment and Planning A*, 38, 1615-1632.
- Mahler, S. J. and Pessar, P. R., 2001, Gendered geographies of power: analyzing gender across transnational spaces, *Identities: Global Studies in Culture and Power*, 7(4), 441-459.
- Mandel, J. L., 2004, Mobility Matters: women's livelihood strategies in Porto Novo, Benin, *Gender, Place and Culture*, 11(2), 257-285.
- Marston, S. A., 2000, The social construction of scal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4(2), 219-242.
- Massey, D., 1994, *Space, Place and Gender*,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Mattingly, D. J., 2001, The home and the world: domestic service and international networks of caring labor,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1(2), 370-386.
- McDowell, L., 1999, *Gender, Identity and Place: Understanding Feminist Geographie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Mitchell, D., 2000, *Cultural Geography: A Critical Introduction*, Blackwell Publishing, Malden.
- Mitchell, K., 1997, Transnational discourse: bringing geography back in, *Antipode*, 29(2), 101-114.
- Mountz, A., 2004, Embodying the nation-state: Canada's response to human smuggling, *Political Geography*, 23, 323-345.
- Nagar, R., 1998, Communal discourses, marriage and the politics of gendered social boundaries among South Asian immigrants in Tanzania, *Gender, Place and Culture*, 52(2), 117-139.
- Nagar, R., Lawson, V., McDowell, L., and Hanson, S., 2002, Locating globalization: feminist (re)readings of the subjects and spaces of globalization, *Economic Geography*, 78(3), 257-284.
- Ong, A., 1999, *Flexible Citizenship: The Cultural Logics of Transnationality*,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 Orozco, A. P., 2007, Global care chains, *UN INSTRAW Gender, Remittances and Development Working paper 2*, New York
- Parreñas, R. S., 2001,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 Pessar, P. R. and Mahler, S. J., 2006, Gender matters: ethnographers bring gender from the periphery toward the core of migration studi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0(1), 27-63.
- Pessar, P. R., 2001, Women's political consciousness and empowerment in local, national and transnational contexts: Guatemalan refugees and returnees, *Identities: Global Studies in Culture and Power*, 7(4), 461-500.
- Piper, N., 2001, *Wife or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Lanham.
- Robinson, K., 2007, Marriage migration, gender transformations, and family values in the 'global ecumene', *Gender, Place and Culture*, 14(4), 483-497.
- Rose, G., 1993, *Feminism and Geography: the Limits of Geographical Knowledg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Sassen, S., 2002, Global cities and survival circuits, in Ehrenreich, B. and Hochschild, A. R., (eds.), *Global Woman: Nannies, Maids,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Metropolitan Books, New York, 254-274.
- Silvey, R., 2000, Diasporic subjects: gender and mobility in South Sulawesi,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23(4), 501-515.
- Silvey, R., 2004a, Power, difference and mobility:

- feminist advances migration studi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8(4), 490-508.
- Silvey, R., 2004b, Transnational migration and the gender politics of scale: Indonesian domestic workers in Saudi Arabia, *Singapore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25(2), 141-155.
- Silvey, R., 2006, Geographies of gender and migration: spatializing social differenc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0(1), 64-81.
- Staeheli, L. A., 1996, Publicity, privacy, and women's political ac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4, 601-619.
- Swyngedouw, E., 1997, Neither global nor local: "glocalization" and the politics of scale, in Cox, K. R., (ed.), *Spaces of Globalization: Reasserting the Power of the Local*, Guilford Press, New York, 137-166.
- Tyner, J. A., 2000, Migrant labour and the politics of scale: gendering the Philippine state, *Asia Pacific Viewpoint*, 41(2), 131-154.
- Walton-Roberts, M., 2004, Transnational migration theory in population geography: gendered practices in networks linking Canada and India, *Population, Space and Place*, 10, 361-373.
- Women and Geography Study group of the IBG, 1986, *Geography and Gender: An Introduction to Feminist Geography*, Hutchinson, London.
- Yeates, N., 2005, Global care chains: a critical introduction, *Global Migration Perspectives*, 44, September.
- Yeoh, B. and Huang, S., 1998, Negotiating public space: strategies and styles of migrant female domestic workers in Singapore, *Urban Studies*, 35(3), 583-602.
- Yeoh, B. and Huang, S., 1999, Migrant female domestic workers: debating the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impacts in Singapor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3(1), 114-136.
- Yeoh, B. and Huang, S., 2000, "Home" and "away": foreign domestic workers and negotiations of diasporic identity in Singapore,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23(4), 413-429.
- Yeoh, B. and Willis, K., 2005, Singaporeans in China: transnational women elites and the negotiation of gendered identities, *Geoforum*, 36, 211-222.
- Zarembka, J. M., 2002, America's dirty work: migrant maids and modern-day slavery, in Ehrenreich, B. and Hochschild, A.R., (eds.), *Global Woman: Nannies, Maids,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Metropolitan Books, New York, 142-153.
- <http://www.un-instraw.org>  
<http://www.un.org/esa/desa>
- 교신: 정현주,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문명연구소(이메일: jung0072@gmail.com, 전화: 02-880-6039, 팩스: 02-874-7787)
- Correspondence: Hyunjoo Jung, 599 Gwanak-ro Gwanak-gu, HK Civilization Research Project,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South Korea (e-mail: jung0072@gmail.com, phone: 82-2-880-6039, fax: 82-2-874-7787)
- 최초투고일 08. 11. 11  
 최종접수일 08. 12. 10